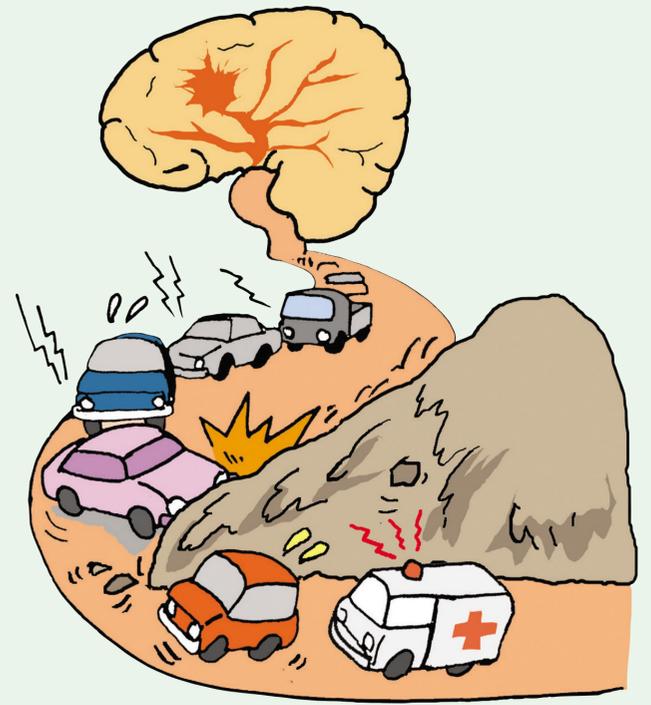


뇌졸중

뇌졸중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뇌졸중은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심장마비와 같습니다. 따라서 뇌졸중(뇌경색)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“발병 후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 하느냐” 하는 것입니다.



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며, 흔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▲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다.



▲ 말할 때 발음이 분명치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.



▲ 일어서거나 걸으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



▲ 주위가 뱅뱅 도는 것처럼 어지럽다.



▲ 의식장애로 깨워도 깨어나지 못한다.



▲ 갑자기 눈이 안보이거나 둘로 보인다.



▲ 갑자기 벼락치듯 심한 두통이 온다.

“ 뇌졸중은 재발할 수 있으므로 신경과 의사의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십시오. ”



뇌졸중은 치료와 함께 예방이 중요합니다.

-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**가능하면 빨리 신경과 병원으로 오십시오.**
- 고혈압, 당뇨병 등을 잘 조절하고 금연, 절주를 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면 **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**
- 뇌졸중이 한번 발생한 분은 **재발을 막기 위해 약물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.**



대한신경과학회

전화:(02)737-6530, 팩스:(02)737-6531

<http://www.neuro.or.kr>



대한뇌졸중학회

<http://www.stroke.or.kr>